

석사 학위 논문

무용 창작
[COUNT] 에 관한 연구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아 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COUNT] 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Dance Creation [COUNT]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이아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창작
[COUNT] 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Dance Creation [COUNT]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이아름

이아름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무용 창작 [COUNT] 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아 름

본 연구는 강사 김미경이 강연했던 사회적 알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인간의 삶에서 특정 시기에 따라 어떠한 목표를 강요, 채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연구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이다.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청년들은 사회적 알람으로 인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소위 일반적이라 여겨지는 시기를 맞추려 쫓기듯 삶을 살아간다. 그 시기를 놓치면 마치 다른 사람들 보다 뒤쳐진 양 여겨지기도 한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 하였어도 끊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과 때로는 스스로조차도 사회적 알람 속에 자신을 가두기도 한다. 나는 온전한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번쯤 멈추고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다.

사회적 알람에 대한 강연은 이전에 획일화 되었던 삶을 살던 사회로부터 점차 자신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로 변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COUNT] 는 해당 강연이 주었던 사회적 알람이라는 단

어를 모티브로 관객들에게 누구나 그러한 알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알람을 과감히 깨 버릴지 아니면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사회적 알람을 정의하기 위해 알람의 특징과 그에 따른 반응, 타인과 사회를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흐름에 대한 순응과 불응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작품을 구성하였다. 전체 세장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개인과 사회의 흐름을 나타내는 알람시계와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아이라는 존재에게 입혀진 큰 셔츠와 짝 채워진 단추들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상과 현실로 나뉜 무용수들의 역할분리와 움직임, 무대공간 구성, 조명, 소품, 음악과 영상으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알람은 큰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용기, 혹은 그 흐름을 자신의 흐름으로 주도권을 바꿔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되짚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삶의 새 호흡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무언가에 의존하던 삶에서 좀 더 독립적인 삶으로서의 발판이 되고, 개개인에게 각각 다른 방면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기에 해당 현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객들의 몫이다.

【주요어】 사회적 알람, 사회 현상, 세대 간 갈등, 개인, 주체적인 삶, 흐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사회적 알람에 대한 이해	3
2.2 사회적 알람이 그려지는 현대 사회의 특징	4
III. 작품 개요	6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6
3.2 작품의 구성요소 와 표현매체	7
3.2.1 움직임	7
3.2.2 의상	8
3.2.3 조명	9
3.2.4 음악	10
3.2.5 소품	11
3.2.6 영상	12
IV. 작품 분석	14
4.1 1장. 사회적 알람이란	15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15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6
4.1.3 음악	19
4.1.4 무대장치 및 조명	19
4.2 2장. 상호작용	21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1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2
4.2.3 음악	25
4.2.4 무대장치 및 조명	25
4.3 3장. 주체적인 삶	27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27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3.3 음악	30
4.3.4 무대장치 및 조명	31
 V. 결 론	 33
참 고 문 헌	34
부 록	36
ABSTRACT	38

표 목 차

〈표 2-1〉 시대별 연령별 희망직업 변화 비교	4
〈표 2-2〉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	4
〈표 2-3〉 행복/불행집단 분류(시기별 행복감에 따른 분류)	5
〈표 2-4〉 현 세대의 가치관 변화	5
〈표 3-1〉 장면의 특성	6
〈표 3-2〉 움직임 표현의 종류와 의도	7
〈표 3-3〉 빛의 방향별 특성	9
〈표 3-4〉 빛의 방향과 심리적 작용	9
〈표 3-5〉 색의 레벨에 따른 감정관계	10

그림 목 차

〈그림 3-1〉 무용수 의상 1	8
〈그림 3-2〉 무용수 의상 2	8
〈그림 3-3〉 무용수 의상 3	8
〈그림 3-4〉 소품	11
〈그림 3-5〉 영상 구도	12
〈그림 3-6〉 첫 번째 영상	12
〈그림 3-7〉 두 번째 영상	13
〈그림 3-8〉 세 번째 영상	13
〈그림 4-1〉 알람에 얽매이지 않는 삶	16
〈그림 4-2〉 타인 의식의 시작	16
〈그림 4-3〉 의식의 충돌	16
〈그림 4-4〉 획일화 되어가는 삶	16
〈그림 4-5〉 획일화 되어가는 삶	16
〈그림 4-6〉 사회적 알람이란	17
〈그림 4-7〉 1장. 플로어 패턴	17
〈그림 4-8〉 1장. 플로어 패턴	17
〈그림 4-9〉 1장. 플로어 패턴	17
〈그림 4-10〉 1장. 플로어 패턴	17
〈그림 4-11〉 1장. 플로어 패턴	18
〈그림 4-12〉 1장. 플로어 패턴	18
〈그림 4-13〉 1장. 플로어 패턴	18
〈그림 4-14〉 1장. 플로어 패턴	18
〈그림 4-15〉 1장. 플로어 패턴	18
〈그림 4-16〉 1장. 조명 플랜	19
〈그림 4-17〉 1장. 조명 플랜	19
〈그림 4-18〉 1장. 조명 플랜	20
〈그림 4-19〉 1장. 조명 플랜	20
〈그림 4-20〉 1장. 조명 플랜	20
〈그림 4-21〉 1장. 조명 플랜	20
〈그림 4-22〉 1장. 조명 플랜	20

〈그림 4-23〉 1장. 소품 구도	21
〈그림 4-24〉 1장. 소품 구도	21
〈그림 4-25〉 1장. 소품 구도	21
〈그림 4-26〉 주입	22
〈그림 4-27〉 다름의 배치	22
〈그림 4-28〉 상호작용	22
〈그림 4-29〉 경쟁	23
〈그림 4-30〉 경쟁	23
〈그림 4-31〉 2장. 플로어 패턴	23
〈그림 4-32〉 2장. 플로어 패턴	23
〈그림 4-33〉 2장. 플로어 패턴	23
〈그림 4-34〉 2장. 플로어 패턴	23
〈그림 4-35〉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36〉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37〉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38〉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39〉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40〉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41〉 2장. 플로어 패턴	24
〈그림 4-42〉 2장. 조명플랜	25
〈그림 4-43〉 2장. 조명플랜	25
〈그림 4-44〉 2장. 조명플랜	26
〈그림 4-45〉 2장. 조명플랜	26
〈그림 4-46〉 2장. 조명플랜	26
〈그림 4-47〉 2장. 조명플랜	26
〈그림 4-48〉 2장. 소품 구도	26
〈그림 4-49〉 의식의 갈등	28
〈그림 4-50〉 알람으로부터의 탈피	28
〈그림 4-51〉 스스로의 알람	28
〈그림 4-52〉 사회적 알람의 울림	28
〈그림 4-53〉 사회적 알람의 압력	29
〈그림 4-54〉 주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	29
〈그림 4-55〉 3장. 플로어 패턴	29

〈그림 4-56〉 3장. 플로어 패턴	29
〈그림 4-57〉 3장. 플로어 패턴	29
〈그림 4-58〉 3장. 플로어 패턴	29
〈그림 4-59〉 3장. 플로어 패턴	30
〈그림 4-60〉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1〉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2〉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3〉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4〉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5〉 [COUNT] 소품 구도	32

I. 서 론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 생명은 그들의 직/간접적인 기대와 채근 속에 만들어진 사회적 알람에 맞춰 성장한다. 자아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유아기부터 은연중에 요구되어 왔던 많은 사회적 알람의 자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녹아들고,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알람을 통해 자라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는 길을 그것이 마치 정답인양 제시한다.

연구자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대해 고민 하였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작품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아가 생성 될 때 즈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술한 고민을 하고 또 같은 고민하는 주변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가면서도 현실에 부딪혀 어려워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흐름대로 가지 못해 후회하는 이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사람은 아쉬워한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해 이것은 비단 어느 한쪽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시기에 타인이 알려줄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 내면의 스스로에게 물어볼 뿐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선택들을 한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일원이 된 그들은 저도 모르게 또다시 후세에게 같은 알람을 쥐어 주는 순환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작품 [COUNT] 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간접인지 타인을 향한 애정인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연구자는 해당 작품 [COUNT] 를 통해 이러한 흐름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연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어떤 방향이 선순환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개인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오늘 날의 현실이다.

연구자의 [COUNT] 라는 작품은 사회적 알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에 막혀있는 이들을 조명한다. 이 시대 청년들의 사회적 알람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표정에 주목했는데, 그들의 현재에 집중해보았을 때, 그들의 대부분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 중 어두운 면을 담는다고 해서 작품의 내용이 사회 역행을 조장함이 아니라 해당 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원인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환의 첫 걸음이 되길, 삶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길 바라는 연구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알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자.

Ⅱ.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알람에 대한 이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사회로부터 알람시계를 하나씩 받는다. 그런데 이 시계는 스스로 알람을 설정할 수 없다. 세상이 임의적으로 합의한 시간에만 울리도록 세팅되어 있다. 여덟 살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 땡! 학교에 가야지? 열네 살이 되면 중학교, 열입곱 살이면 고등학교에 가라고 종이 올려댄다. 스무 살이 되면 땡! 알람이 또 울린다. 우리 모두 대학 가야지?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취업의 알람이, 30대 초중반에는 결혼이라는 알람이 사정없이 울려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알람 소리는 순차적으로 우리를 옥죄어온다. 알람이 울릴 때 남들과 같은 속도로 쫓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제생 취급을 받는다. 본인 스스로도 점수 못 딴 학생처럼 찝찝함에 시달린다.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루저가 되는 것이다. 단지 알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¹⁾

‘사회적 알람은 ‘제때’를 말한다. 제때 공부해야 한다, 제때 결혼해야 한다. 제때 애를 낳아야 한다..... 때문에 제때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은 원만하고 성실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는 제때 못하면 곧 ‘성격 모나고 독특한 사람’으로 찍힌다는 말이기도 하다.²⁾

‘사회적 알람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못해 폭력적일 때도 있다. 알람에 맞추지 못한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것은 물론, 뒤늦게 시도하는 사람의 발목까지 붙잡는다.’³⁾

알람의 사전적 뜻으로는 불안, 공포, 경보(음), 경고 신호, 경보기, 경보 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 논문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깊게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면 경보의 뜻으로 태풍이나 공습 따위의 위험이 닥칠 때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나 신호 라고 말하고 있다.

강사 김미정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회적 알람’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며 이전 세대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살아가는 삶을 위협으로 간주,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회의 특정 시기에 대해 강요/채근 하는 부분들을 알람에 비유하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꼬집었다.

1) 김미정, (2014), 『살아있는 뜨거움』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p.32

2)3) 상계서 p.33

2.2 사회적 알람이 그려지는 현대 사회의 특징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사회적 알람이라는 단어를 지칭하기까지 현대 사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표 2-1〉 시대별 연령별 희망직업 변화 비교

학생 희망직업 비교(상위 10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7	2018	2007	2018	2007	2018
1위	교사	운동선수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위	의사	교사	의사	경찰관	회사원	간호사
3위	연예인	의사	연예인	의사	공무원	경찰관
4위	운동선수	조리사(요리사)	법조인	운동선수	개인사업	뷰티디자이너
5위	교수	인터넷방송 진행자(유튜버)	공무원	조리사(요리사)	간호사	군인
6위	법조인(판,검사,변호사)	경찰관	교수	뷰티디자이너	의사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 자 및 연구원
7위	경찰	법률전문가	경찰	군인	연예인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8위	요리사	가수	요리사	공무원	경찰	항공기 승무원
9위	패션디자이너	프로게이머	패션디자이너	연주가/작곡가	공학관련 엔지니어	공무원
10위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	운동선수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패션디자이너	공무원

〈표 2-1〉에 따른 시대적인 차이로 보았을 때 이전 세대 자녀들의 직업선택은 주로 부모와 교사에 의해 선택이 되었다면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진로탐색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이 보다 다양화 되고 구체화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표 2-2〉 청소년의 직업 선택 기준

(단위%)

응답자 특성별	1+2순위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성 취	사회에 대한 기여도	기타
전체	43.5	9.3	3.3	37.2	27.6	1.8	31.8	4.5	33.5	6.1	0.9	0.2
만9~12세	0	0	0	0	0	0	0	0	0	0	0	0
만13~18세	46.2	11.7	3.6	30.8	25.3	2.4	29.1	4.8	37.6	7.4	1	0.1
만19~24세	41.4	7.3	3.1	42.2	29.5	1.4	34	4.3	30.4	5.1	0.9	0.3

또한 〈표 2-2〉 연령층에 따른 비교를 보면 연령이 낮고 삶의 반경에 부모가 개입되어 선택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며 독립적 재정의 필요가 적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관심, 흥미를 생각하여 희망 직업을 정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로부터 생각과 물질적 독립 시기가 가까워지는 연령일수록 수입과 안정성,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세밀한 비교를 통해 희망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표 2-3〉행복/불행집단 분류(시기별 행복감에 따른 분류)³⁾

구분	빈도(명)	비율(%)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음	403	20.2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음	48	2.4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나 그래도 미래는 희망적임	363	18.2
현재 괜찮으나 미래 불안함	52	2.6
현재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음	1,134	56.7

〈표 2-3〉은 2018년 성인 20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들 중 20%는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는 그들의 인생이 이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의 일부를 ‘사회적 알담’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여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행복에 대한 갈급은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에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21세기 청소년 세대 교육 개선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식적 습득과 여러 가지 매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성장한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 (Work(일), Life(삶), Balance(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 자신의 주장을 묵안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 무조건 따르게 되는 확립된 사회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만족스럽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알담을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4〉현 세대의 가치관 변화 4)

	필수	선택
취업	86.3	13.7
내 집	66.3	33.7
자가용	65.1	34.9
결혼	28.3	71.7
출산	42.6	57.4

위의 여러 인용 자료를 통해 현 세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사회로부터 개인으로 미시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의도를 담아 해당 작품을 연구하게 되었다.

3)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연구. p.127

4) 잡코리아X알바몬. (2019). 2030세대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Ⅲ. 작품 개요

3.1 작품 형식 및 구조

작품 [COUNT] 는 기본적으로 알람에 대한 특성, 그에 따른 반응과 사운드, 개인의 성장을 보여주는 유아기의 발달 과정, 그리고 타인을 만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표현하는 컨택 동작, 동작의 넘버링을 함으로서 획일화되고 통일 된 움직임, 비교대상으로 인한 움직임의 변화가 주된 움직임이 되어 작품을 이룬다. 전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장면의 전환마다 작품의 상징인 알람이 울리며 기존의 분위기를 깨고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가는 매개체가 된다.

각 장면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은 <표 3-1>에서 알 수 있다.

<표 3-1> 장면의 특성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Intro	사회적 알람을 느끼지 못하는 평온한 때	각이 지지 않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2 min
1장	사회적 알람이란	목표(이상)를 향한 개개인의 움직임(경쟁과 의식) 사회라는 획일화 되어진 움직임 순차적 움직임(= 캐논 형식)	3 min
2장	사회적 알람의 상호작용	세 무용수의 다양한 방식의 컨택 (셔츠 단추를 채우다, 신체를 터치)	6 min
3장	주체적인 삶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단추를 풀고 채우다) 딱딱하고 일정한 움직임에서 자유롭고 리드미컬한 움직임	5 min
Outro	삶의 대한 선택	시계(시간과 사회)에 눌리고 그것을 벗어나려 힘겹게 일어남	30 s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작품 [COUNT] 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 타인의 개입을 통해 이상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신체적 발달 움직임을 유아의 성장에 빗대어 대표적으로 연구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흐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작들은 작품의 처음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한 직접적 용도로 사용이 되고, 전반적인 움직임의 배경이 되어 움직임의 구성을 완성한다. 기본 동작으로부터의 빌드 업 동작들은 내용의 전개에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심리가 고조되고 사회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성장에 있어 많은 고민과 갈등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의 고뇌, 사회와의 갈등, 타인과의 가치관 충돌을 나타냈다.

작품 구성에 있어서 위치 변화로는 현실을 뜻하는 상수 업 스테이지와 이상을 의미하는 하수 다운 스테이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주로 상수 업 스테이지에서 하수 다운 스테이지로 사전 이동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가 의도한 이상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자신이 이상이라 생각하는 타인과 현실에 있는 자신을 비교하고 이상을 보며 현실로부터 이상을 향해 가는 이상과 현실의 순차적인 동작(캐논 형식)을 만들고 꾸준히 반복적인 동작들을 함으로서 사회의 규칙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높낮이의 변화에 따른 표현의 의도는 작품의 전개에서 보면 아이 움직임을 모티브로 표현한 장면에서의 레벨(높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한 솔로가 아닌 듀엣, 트리오의 장면에서 무용수들 간의 높고 낮음이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계급과 계층, 사회적인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표 3-2〉 움직임 표현의 종류와 의도

구현	탐구	기대효과
반복	동작의 반복적 움직임, 캐논 형식	규칙적인 사회
발전	기본 상징적 동작에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변형, 발전	유아의 성장, 사회와의 충돌
위치	상수 업 스테이지에서 다운 스테이지로의 이동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가기까지의 시도적 움직임
레벨 (높낮이)	전체 무용수의 통일된 낮음→높음의 움직임 무용수간의 높고 낮음의 차이	개인의 성장, 사회의 개입 계층, 계급의 분리, 사회적 위치 차이

3.2.2 의상



〈그림 3-1〉 무용수 의상 1



〈그림 3-2〉 무용수 의상 2



〈그림 3-3〉 무용수 의상 3

작품에서의 의상은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당 작품에서의 주요 내용,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관점은 기성세대(타인)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압박과 성장하는 자녀들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괴리로 볼 수 있는데, 무용수들의 의상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상의는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밀집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근무복인 오피스 룩을 상징하는 셔츠를 선택했고 내의는 움직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팔티를 선택했고, 셔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깔끔한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선택했다. 색상은 툇다운 되고 차별하게 보이는 무채색과 네이비, 베이지 색을 선택함으로써 밝지만은 않은 작품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하의는 가려지고 단정해 보이는 긴 바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반바지를 선택함으로써 깔끔하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오피스 룩과는 상반되는 자유롭게 정리되지 않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 의상 조합은 무용수의 신체보다 큰 사이즈의 셔츠를 선택함으로써 아이에게 입혀진 조금은 버거운 현실을 압해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고, 셔츠의 많은 단추들을 풀고 채우는 데서 오는 심리적 변화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셔츠라는 사회적인 규칙을 압해 그것들을 바르게 채움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알람에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셔츠의 단추를 모두 풀어 해침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를 누르지 않고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은 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작품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셔츠를 이용한 움직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꾸준히 전달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다.

3.2.3 조명

전체적인 조명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사회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따뜻한 색감 보다는 어둡고 차가운 색감 위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물의 그늘진 감정과 극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전측광의 조도를 낮추고 각광과 후광 위주의 조명을 사용하여 작품을 보다 극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움직임에 맞춰 조명의 방향성을 하수 상단에서 상수 하단으로 보내는 사선 방향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통해 명확한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사용하였던 색과 조명의 위치, 조명에 따른 효과는 <표 3-3>, <표 3-4>, <표 3-5>에서 알 수 있다.

<표 3-3> 빛의 방향별 특성⁵⁾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주사용 용도	분위기
후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에 사용	주로 대상의 위용을 표현하는데 사용	묵직한 분위기
상측광 (High Side Light)	대상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진다	주로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하는데 효과적. 묵직한 느낌	질감을 잘 보여준다
전측광 (Front Light)	매우 정확하지는 않으나 표현을 매끄럽게 도와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명도	정면에서 쏘아지는 빛이 사실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에 주로 사용, 극적 효과를 내는데는 취약	사실적 분위기
각광 (Foot Light)	선명도가 정확	극적인 표현을 담아내는데 유용	희망적, 소멸, 탄생에 모두 사용

<표 3-4> 빛의 방향과 심리적 작용

수직	권위, 거만, 존엄, 엄격, 강직
수평	안정, 평화, 정숙, 제한, 피로
사선	활동, 생생, 폭력, 과민, 불확실

5) 고희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2007). 『무대조명Ⅲ』. 교보문고, p.41에서 재구성함

〈표 3-5〉 색의 레벨에 따른 감정관계

	밝은색	순색	어두운색
빨강	행복, 봄, 온화, 젊음	기쁨, 정열, 강렬, 위험	답답함, 무거움
주황	기쁨, 명랑, 따뜻함, 애정	화려했던 무질서, 명예	기름, 풍요, 노후, 압력, 중후
노랑	마음, 활발, 소년	향미, 환희, 발전, 노예, 경박, 도전	산비, 풍요, 어두움, 음기
초록	양기, 온기, 명랑, 기쁨, 평화, 희망, 건강, 안정, 상쾌, 신뜻, 목장, 초원	희망, 휴식, 위안, 자성, 고독, 생명, 차분함, 안정, 자연적인	침착, 우수
파랑	젊음, 하늘, 신, 조용함, 상상, 평화	희망, 이상, 진리, 냉정, 이해, 젊음	어두움, 근심, 쓸쓸, 보수적, 반성
남색	장엄, 신비, 천국, 환상, 차움	차움, 이해	위험, 불안, 공포, 고독, 숙연, 신비
보라	우아, 귀인, 고풍, 고귀, 그늘, 실망, 근엄	고귀, 섬세함, 퇴폐, 권력, 하영	슬픔, 우울
자주	서식, 색시, 도화적, 화려함	궁중, 양관, 권력, 하영	신비, 중후, 건실, 고풍, 고귀, 우수, 착함
흰색	순수, 순결, 눈, 살랑, 신성, 청결, 청순, 정직, 고독, 공허, 단순		
회색	검은, 무기력, 우울, 절망, 퇴색, 침묵, 잔학, 쓸쓸함, 중성		
검은색	불안, 밤, 침묵, 흑암, 공포, 권위, 두려움, 압력, 절망		

3.2.4 음악

3.2.4.1 작은별 변주곡(Mozart 12 Variations C, K_265 on Ah vous dirai-je)

작품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모차르트의 음악 중 하나인 작은별 변주곡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작은별’, ‘ABC 송’의 멜로디로 잘 알려져 있는 음악이다. 해당 음악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로 아이의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동요를 사용함이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지식 교육은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며 만들어낸 스스로에게 주는 사회적 알람이라 볼 수 있다. 자녀를 향한 일종의 바람과 욕심과 희생과 배려가 모두 담긴 다양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음악이라 판단, 해당 곡을 선정하였다.

3.2.4.2 Herbie Hancock - Watermelon Man

다른 하나의 음악은 Herbie Hancock의 Watermelon Man 도입부를 편집하여 삽입했는데, 음악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소리들이 불규칙하게 들리지만 규칙적인 리듬을 형성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각기 다른 흐름의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해당 음악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혼란하나 혼란 속에서의 규칙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분이 연구자가 이 음악을 선택한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3.2.4.3 효과음 - 알람, 시계소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알람이라는 소스를 사용하였고, 시계에서 들릴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여 초침소리, 알람소리, 불사에 까지는 알람소리를 이용하여 작품 내 극적 효과를 더하였다.

3.2.5 소품



〈그림 3-4〉 소품

시간을 상징하는 다양한 크기의 열두개의 시계는 음악과 조명에 사용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되고 이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만들어진 시계들의 구도는 출발선이 되기도 하고 다른 시간 속에 있음을 경계로 표현하기도 하며 현실에 대한 큰 움직임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미장센이라 볼 수 있다.

3.2.6 영상



〈그림 3-5〉 영상 구도

각 장면마다 중요한 장면에 이해를 돕는 역할로 영상을 삽입하였다. 영상은 총 세 번 무대 정면의 가장 뒷편 배경으로 연출되었는데, 이는 해당 장면마다 무대의 조명 대신 무용수의 움직임이 영상에 자연스럽게 묻어 그 영상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한 연출로 사용되었다.



〈그림 3-6〉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은 ‘1장 사회적 알람이란’에 나오는 사회적 알람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단어들에 대한 이미지의 나열이다. 학업과 대입, 취업과 결혼, 출산에 관련한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알람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미지화를 통해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7〉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은 2장 ‘상호작용’ 도입부에 사용이 되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의 생각이 자신에게 주입이 되기도 하는 가치관의 주입에 대한 의미를 셔츠의 단추를 채우고 푸는 동작에 빗대어 표현한 위한 영상이다. 무용수들은 영상의 앞에서 동일한 움직임을 함으로서 영상이 해당 움직임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을 서술하는 느낌을 준다.



〈그림 3-8〉 세 번째 영상⁶⁾

세 번째 영상은 3장 ‘주체적인 삶’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각진 움직임의 무용수가 흐트러지고 처절하게 움직인 후에 쓰러지면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현 세대에 바쁘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알람의 흐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1,2장에 이어 일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존재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하는가를 무용수의 처절함과 바쁘게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6) 여의도 타입랩스, 유튜브, 2019년 5월 30일 검색, <https://youtu.be/HhZj5XILyVs>

IV. 작품 분석

안 무 : 이아름

출 연 : 김 봄, 박은소, 이아름

음 악 : 작은별 변주곡_Mozart 12 Variations C, K_265 on Ah vous dirai-je

Watermelon Man - Herbie Hancock (도입부 삽입)

여러 시계의 알람소리, 초침소리

소 품 : 다양한 종류의 알람시계 12개

영 상 : 사회적 알람의 상징적 사진들의 나열

셔츠의 단추를 풀고 채우는 장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풍경

러닝타임 : 16분

1. 작품 의도

우연히 듣게 된 강연에서 알게 된 ‘사회적 알람’이라는 용어는 한 개인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 걷고 말하고 배우고, 좋은 곳에 소속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치르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등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련의 행위 혹은 이벤트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의무라 규정짓고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채근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사회적 알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소위 일반적이라 여겨지는 시기를 맞추려 쫓기듯 삶을 살아간다. 그 시기를 놓치면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진 양 여겨지기도 한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하였어도 끊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과, 때로는 스스로조차도 사회적 알람 속에 자신을 가두기도 한다.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번쯤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온전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 작품 내용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 생명은 그들의 직/간접적인 기대와 채근 속에 만들어진 사회적 알람에 맞춰 성장한다. 자아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유아기부터 은연 중에 요구되어왔던 많은 사회적 알람의 자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녹아들고,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알람을 통해 자라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는 길을 그것이 마치 정답인양 제시한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간섭일까, 아니며 타인을 향한 애정일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알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자.

4.1 1장. 사회적 알람이란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한 생명이 태어나 어느 정도 사회에 녹아들기 전 까지는 자신의 속도와 흐름대로 살아간다. 외부의 자극을 느끼지 않았던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인간은 걷고 말하고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출산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거치며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비교되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알람에 의해 소수는 다수의 흐름을 맞춰간다.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모티브로 구성된 동작이 주를 이룬다. 시계들로 둘러 쌓인 사람들은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시계의 위치를 움직임으로서 자신의 공간 밖을 나가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공간의 전환에 대해 표현한다. 첫 장면에 보여지는 부드럽고 유연했던 개인의 움직임은 어느새 사회를 만나 규칙적이고 각진 움직임, 획일화 된 움직임으로 변하여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된다. 1장의 움직임은 현실을 상징하는 시계로 만들어 놓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과반수의 흐름을 따라야만 할 것 같은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 알람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림 4-2〉 타인 의식의 시작

〈그림 4-1〉과 〈그림 4-2〉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움직임의 흐름은 현실을 깨닫기 전 자유롭고 높은 움직임이었다면, 사회의 시작이 타인에 대한 의식이고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딱딱하고 낮은 움직임이 주를 이루게 된다. 구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의 업 스테이지는 현실을, 하수의 다운 스테이지는 이상을 표현한다.



〈그림 4-3〉 의식의 충돌



〈그림 4-4〉 획일화 되어가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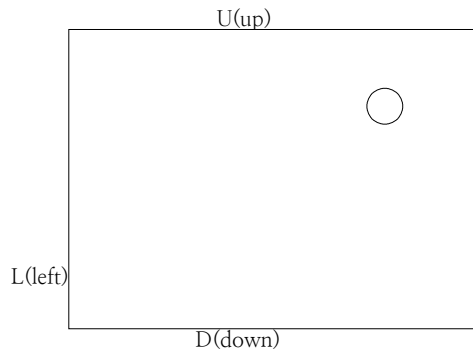
〈그림 4-5〉 획일화 되어가는 삶

〈그림 4-4〉과 〈그림 4-5〉에서는 유아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조금씩 움직임을 빌드업 하여 왼쪽 사선 앞을 향하여 계속 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상을 향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사선의 구도가 주는 분위기로는 위계질서나, 계급사회와 같은 우월한 자와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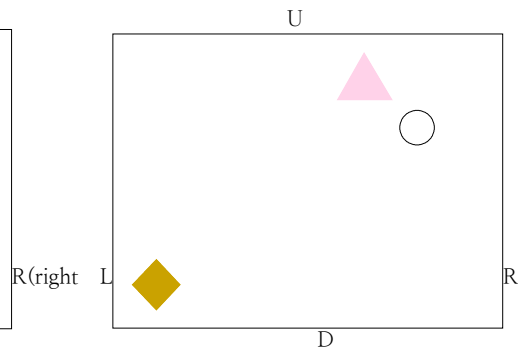
못한 자에 대한 구도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목적의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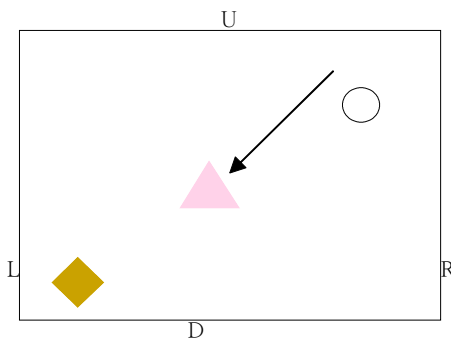
〈그림 4-6〉 사회적 알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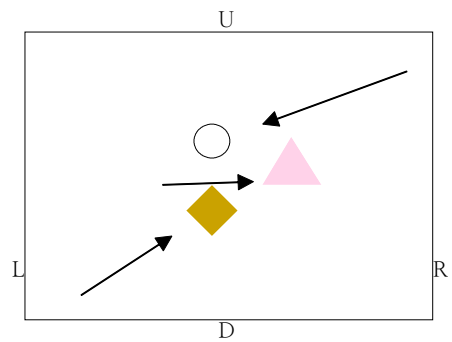
〈그림 4-7〉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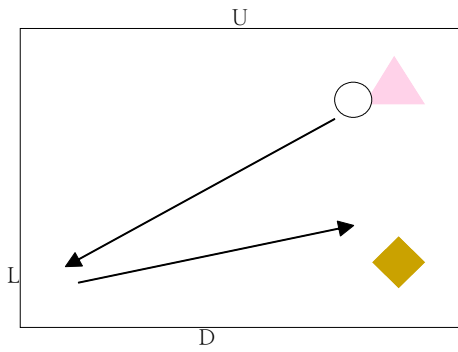
〈그림 4-8〉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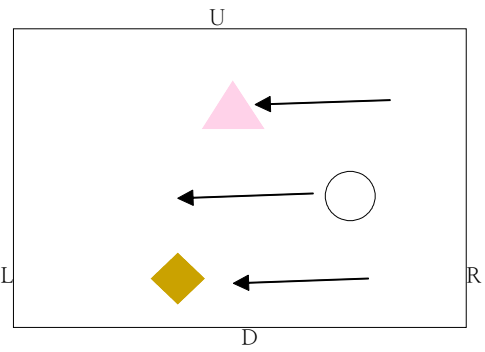
〈그림 4-9〉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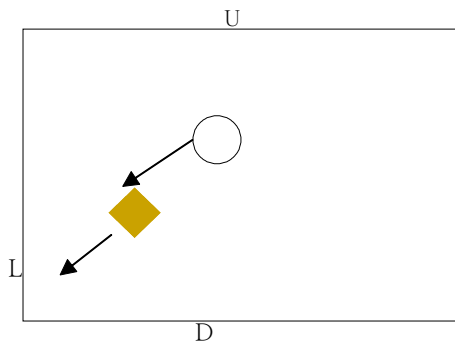
〈그림 4-10〉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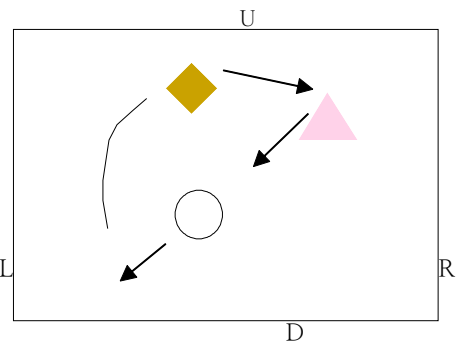
〈그림 4-11〉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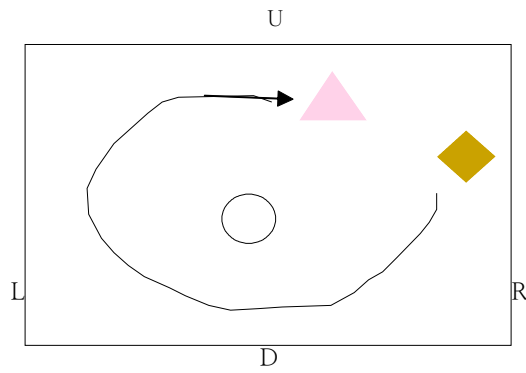
〈그림 4-12〉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4-13〉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4-14〉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4-15〉 1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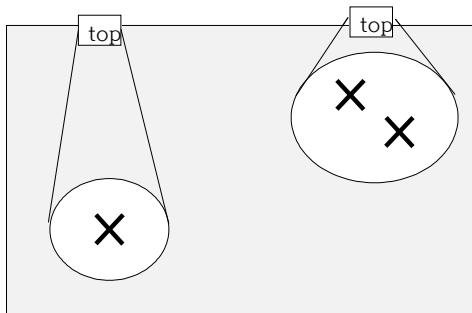
4.1.3 음악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알파벳 송의 바탕이 되는 멜로디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래 모차르트 변주곡 중 일부이다. 흔히 알파벳 송, 작은별 아라 불라는 이 음악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단계적 알람이 있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사회적 알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어른들의 자식을 향한 불붙는 사교육 경쟁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음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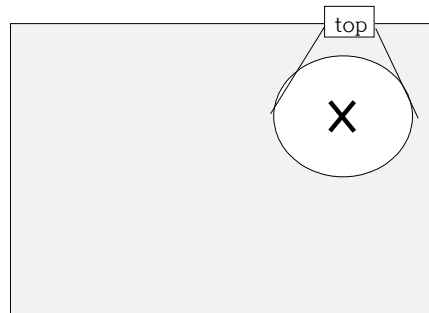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는 무용수는 자신의 흐름대로 유연하고 여유있는 움직임으로 자신의 색깔을 표현한다. 이때 알람이 울리면서 음악이 시작되고,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처음 시작은 피아노 선율로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듯 하나 점차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음악이 조금씩 변형되고 뒤틀리며 곡이 전개가 된다. 이때, 음악 속에 초침 소리와 알람 소리를 적절히 믹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알람들을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4.1.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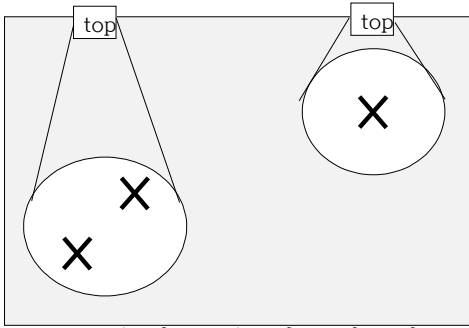
첫 번째 장에서는 캐릭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른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탑(Top light)을 사용하여 공간에 대한 분리, 캐릭터에 대한 집중을 표현하였다. 또한 사회적 알람에 대한 목표로 하수 다운 스테이지를 이상향으로 정해두고 하수 사선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엘립 조명을 사용하여 빛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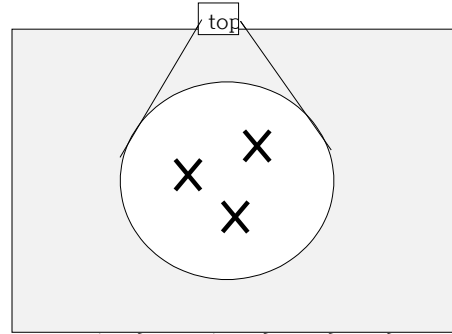
〈그림 4-16〉 1장. 조명 플랜



〈그림 4-17〉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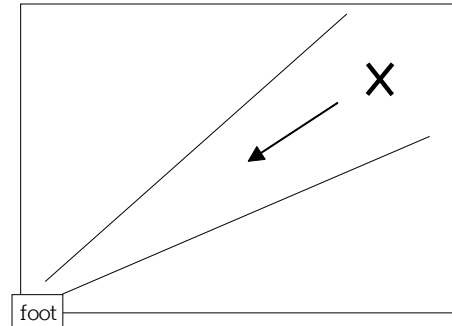
〈그림 4-18〉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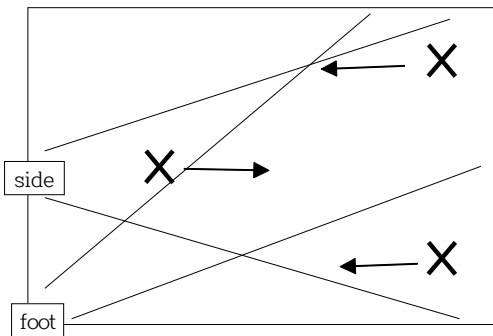
〈그림 4-19〉 1장. 조명 플랜



〈그림 4-20〉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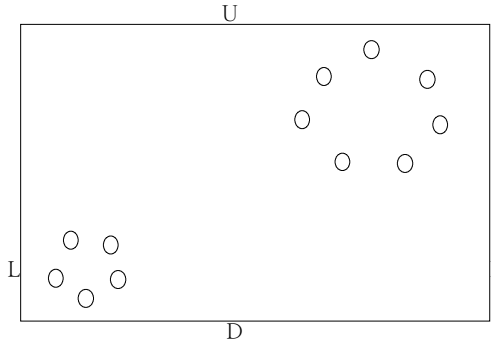


〈그림 4-21〉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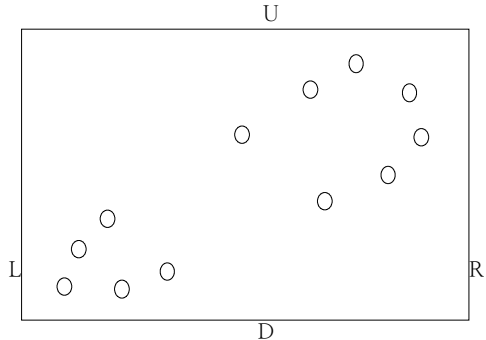


〈그림 4-22〉 1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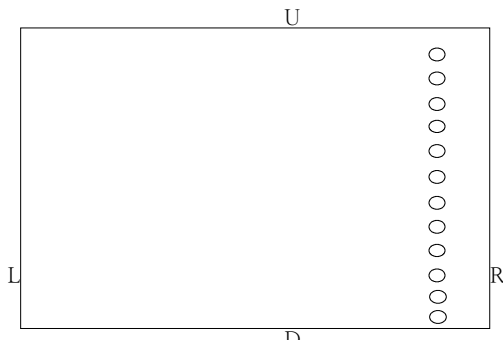
소품의 위치 변화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경계, 계급과 계층, 사회적 알람에 합류하는 출발선의 장면으로의 전환에 사용하였다. 1장의 소품 위치 변화는 아래와 같다.



〈그림 4-23〉 1장. 소품 구도



〈그림 4-24〉 1장. 소품 구도



〈그림 4-25〉 1장. 소품 구도

4.2 2장. 상호작용

4.2.1 내용 및 안무의도

개인과 개인이 만나 소통, 협동하며 타인을 의식하기도, 경쟁하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을 이루며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세워지며 삶에 욕심이 생기고 타인이 주는 알람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나만의 알람(목표)이 생긴다. 사회적 알람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살아가며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을 형성하여 타인에게 울리는 알람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이 세워둔 가치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알람은 사회를 이루며 주게 되고, 받게 된다.

의식과 경쟁, 협동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을 셔츠의 단추를 풀고 채우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남에게 강요하게 되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길을 타인이 막아서게 된다. 술한 부딪침에 의해 자신의 색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라는 인생의 법칙, 방식이 생기게 된다. 의상의 단추를 푸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의미하고, 또 단추를 채우는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규칙, 규율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들려오는 규칙적인 시계소리는 시간의 흐름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말하게 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이나 조급함의 심리를 담고 있기도 하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26〉 주입



〈그림 4-27〉 다름의 배척

자신이 정해놓은 규제 속에 타인까지도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주입에 대한 표현이다. 나아가서 규제를 뿌리치고 다시 걸어가도 내가 아닌 타인은, 사회는 자꾸만 자신의 흐름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흐름에 맞추길 강요한다.



〈그림 4-28〉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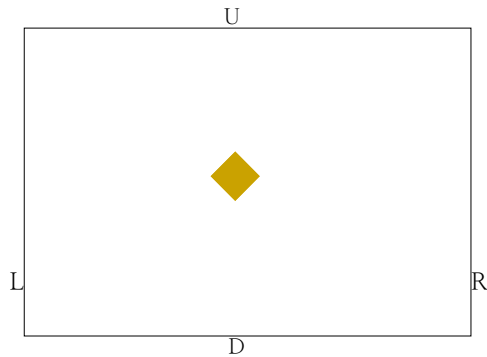
〈그림 4-29〉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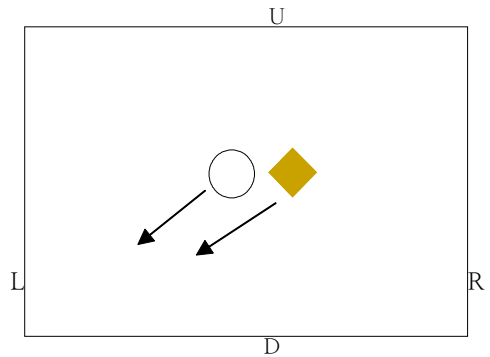
〈그림 4-30〉 경쟁

다름을 배척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회관계를 무용수 간의 선택과 무너지고 세워지고 접촉하여 알람에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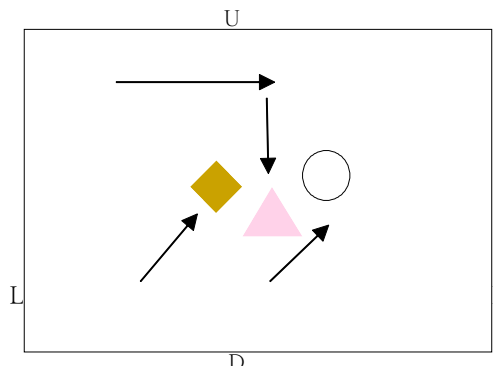
2장의 플로어 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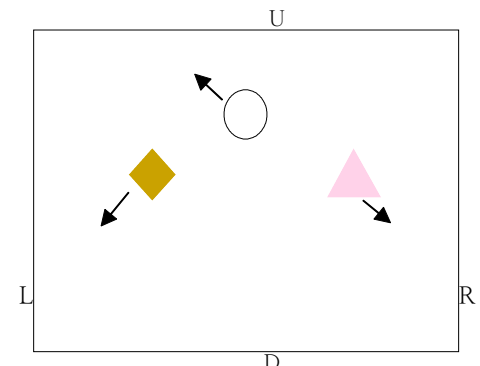
〈그림 4-31〉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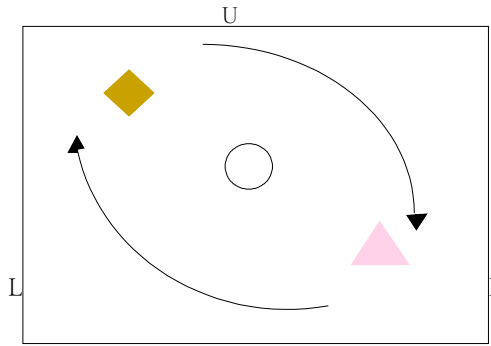
〈그림 4-32〉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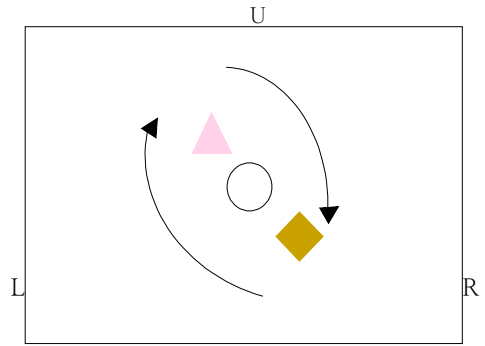
〈그림 4-33〉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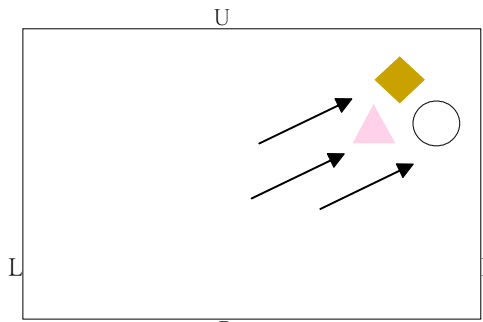
〈그림 4-34〉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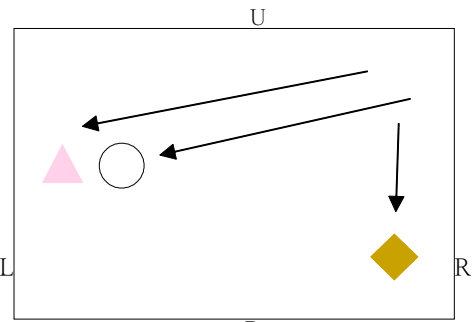
〈그림 4-35〉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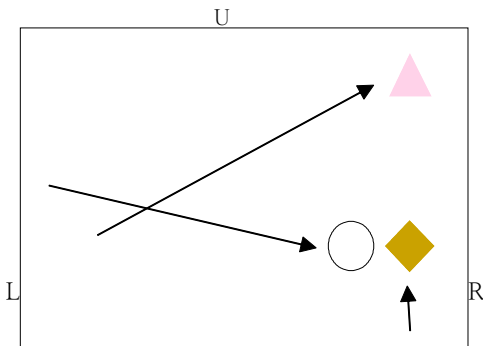
〈그림 4-36〉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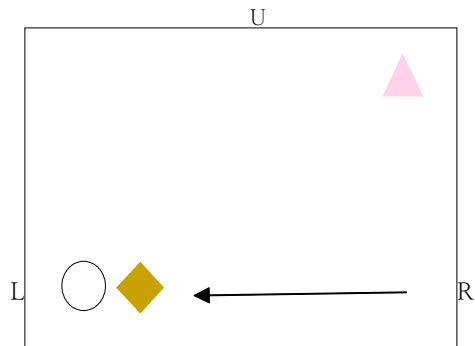
〈그림 4-37〉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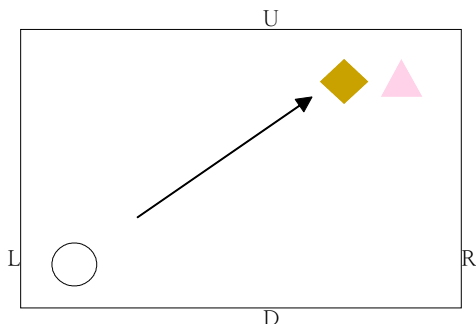
〈그림 4-38〉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4-39〉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4-40〉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4-41〉 2장. 플로어 패턴

4.2.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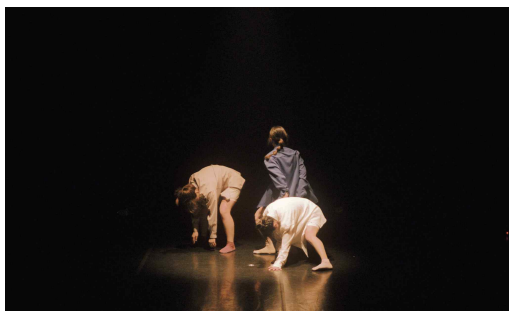
작은별 변주곡의 마이너(단조) 부분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알람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모여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고 경쟁하며 만들어가는 이상적 목표가 보다 나은 삶이라 생각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표현한다.

Herbie Hancock 의 Watermelon Man의 도입부를 삽입하였다. 불규칙한 듯 보이지만 규칙적인 리듬과 다양한 색깔의 악기들의 조화를 통해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조화롭게 굴리고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리코더의 음색과 가끔씩 튀어나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추임새가 기준이 되어 점점 음악은 빌드업 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며 리듬감이 형성된다. 움직임에도 경쟁과 의식, 협력과 조화를 키워드로 움직임에 리듬감을 만들고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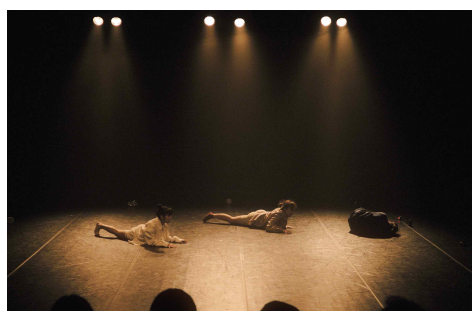
4.2.4 무대장치 및 조명

알람소리가 울리며 무대에 있던 두 무용수는 다시 한 번 출발선이 되었던 알람시계의 대형을 이동하여 하나의 큰 시계를 만든다. 조명은 개인의 단추를 풀고 채우는 행위에 집중시키기 위해 탑(Top light)을 사용하였고, 단추를 풀고 채우는 확대 영상을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풍성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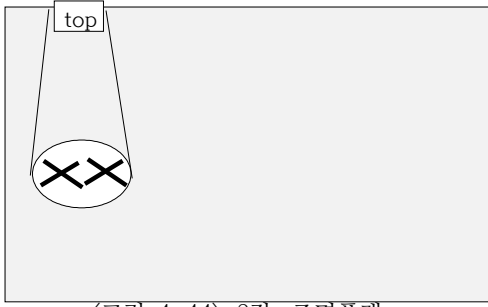
타인의 개입으로 자신의 리듬이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고자 탑(Top light)의 스팟의 변화를 주었다. 색상은 사회의 조화로움 보다 경쟁이나 의식이라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따뜻한 색감보다는 톤다운 되어진 차가운 푸른 색(Blue/Green) 조명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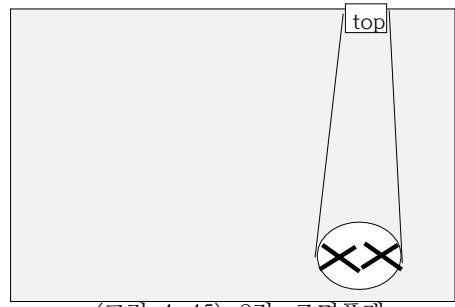
〈그림 4-42〉 2장. 조명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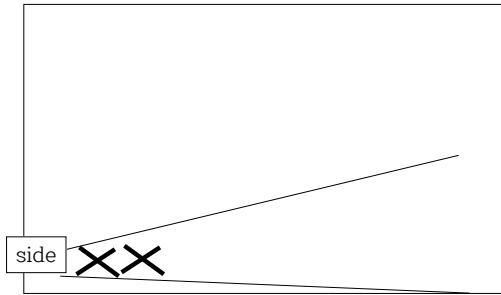
〈그림 4-43〉 2장. 조명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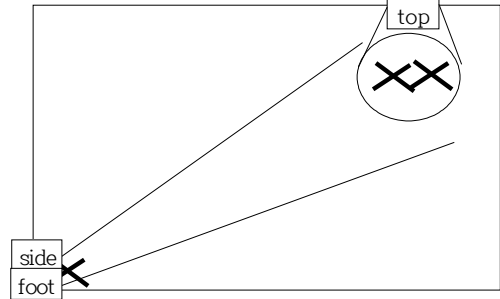
〈그림 4-44〉 2장. 조명플랜



〈그림 4-45〉 2장. 조명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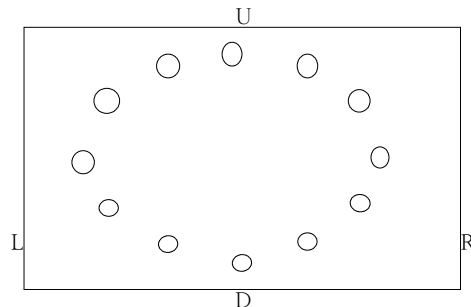
〈그림 4-46〉 2장. 조명플랜



〈그림 4-47〉 2장. 조명플랜

〈그림 4-44〉와 〈그림 4-45〉을 참고하며 설명하면 두 무용수의 컨택이 이루어지며 현실(상수)로부터 이상(하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빛줄기는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고 또렷하며 밝아지고 자신이 이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사회적인 알람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선택하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로 나누는 이분법적 결론이지만, 방법론 적으로는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갈 것인가로 나뉘게 된다.



〈그림 4-48〉 2장 소품 구도

알람이 울리고 시계들의 위치는 한 번 더 바뀌게 된다. 마치 사회라는 커다란 시계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가운데 서있는 무용수를 중심으로 큰 시계가 만들어 진다. 이 시계의 모양은 3장에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구도이며 현실이라는 세계를 크게 표현하고자 1장에서 보여주었던 각각의 작은 원(개인의 삶) 두 개가 만나 하나의 큰 원(사회)으로 표현하였다.

4.3 3장. 주체적인 삶

4.3.1 내용 및 안무의도

쏟아지는 주변의 여러 요구와 바람은 삶의 걸음에 무게가 된다. 때로는 걷고자 하는 방향으로 걷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애정을 담은 관심과 그렇지 않은 간섭이 모여 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한다. 살아가는 요령이 생긴다. 아니, 그런 삶들에 익숙해 진건지 시선을 극복해 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각각의 인간이 자라는 속도는 다르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성장을 떠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서기까지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내적 갈등 속에 한 개인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에 놀려, 시선에 놀려 사회라는 높은 파도 속에 부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유연하게, 혹은 대담하게 거스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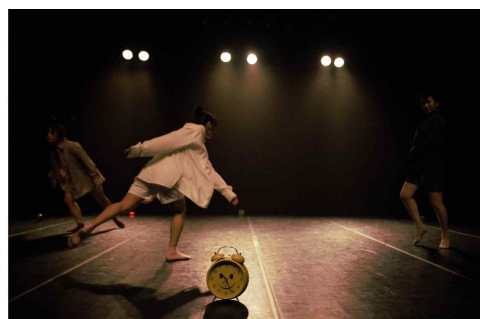
큰 사회를 열두개의 시계라는 소품에 빚대어 하나의 큰 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밖에서 이상을 살고 있는 자의 괴리를 벗어나려 할 때, 규칙적으로 시계를 돌고 있는 자에 의해 다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맞춰놓았던 사회적 알람에 순응하는 듯 입고 있는 의상의 단추를 채우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하게 된다. 구성하고 있는 시계라는 소품과 셔츠라는 의상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 수단의 일종으로서 구성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상은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흘러가는 하나의 큰 파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흘러나오는 영상에 무용수들의 캐릭터 별 움직임이 묻어 상황을 더욱 과장되고 세밀하게 표현한다.

연구자는 작품 속 무용수들의 역할을 자신만의 흐름이 있는 이상적인 사람, 규칙을 추구하는 사람, 이상을 좇아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매우 충실하고 직접적인 표현 움직임으로 캐릭터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현실과 이상의 조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의도하며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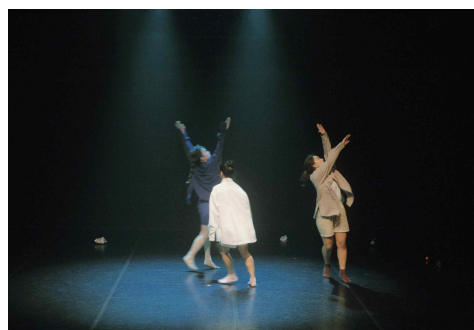
〈그림 4-49〉 의식의 갈등



〈그림 4-50〉 알람으로부터의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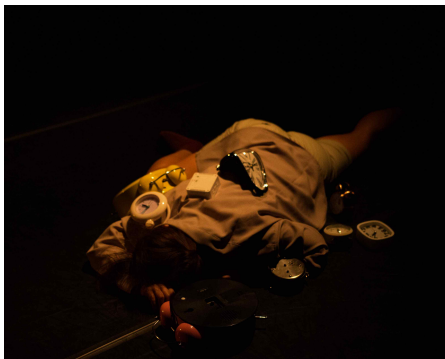


〈그림 4-51〉 스스로의 알람



〈그림 4-52〉 사회적 알람의 울림

흐름에 벗어나려 하는 무용수를 일정한 속력으로 시계주변으로 도는 또 다른 무용수가 제재함으로서 다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는 타인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알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며, 자신도 어느새 누군가의 이탈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사회적 알람이 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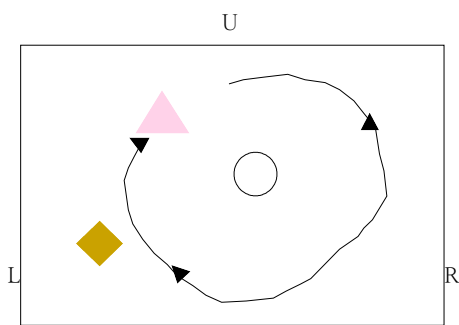
〈그림 4-53〉 사회적 알람의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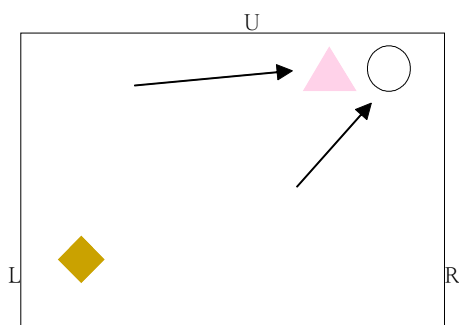
〈그림 4-54〉 주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

타인에 의해 시계로 놀리는 행위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의 무게에 덮혀 있거나 시간의 무덤처럼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시간의 무게에 대한 표현과 알람에 대한 버거움을 동시에 내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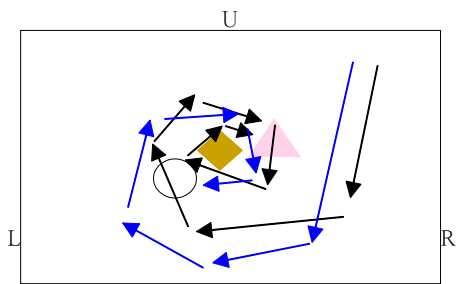
사회적 알람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시간 속력에 눌린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용수는 놀려있던 시간을 힘겹게 이겨내며 눈앞의 시계를 높이고, 다른 시계들을 바라보며 마무리가 되는데, 이는 시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혹은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고 사회적 알람을 끄고 나만의 흐름으로 시간을 이끌고 갈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구자의 의도가 담긴 엔딩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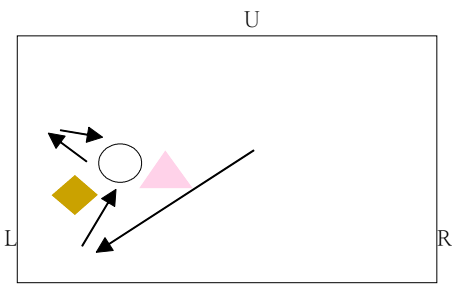
〈그림 4-55〉 3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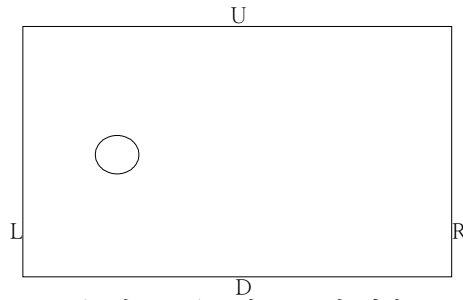
〈그림 4-56〉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4-57〉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4-58〉 3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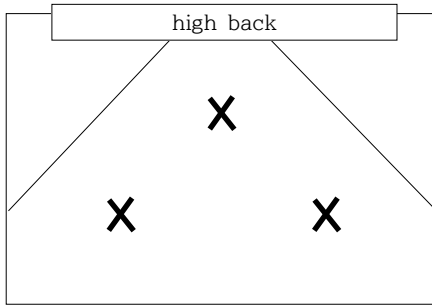
〈그림 4-59〉 3장. 플로어 패턴

3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시계와 선순환, 제약 이라는 세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규칙에 반대되는 움직임에 대한 압박과 제약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담았다. 양 손이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되어 시간을 표현하고 타인의 작용에 대한 반응과 무반응, 이에 대한 사회적 알람이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 감정 중 흐름을 따라야만 한다는 불안함, 조급함과 필사적이고 처절함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장면의 거칠고 도정되지 않은 무용수의 움직임은 사회적 알람의 틀에서 무너지기 직전인 인간의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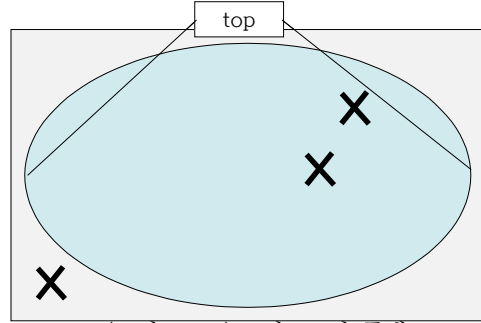
4.3.3 음악

2장과 이어지는 음악의 반주는 점차 빌드 업 되어 리듬감과 무게감을 더해주는 베이스와 퍼커션이 추가됨으로서 마지막 장의 연구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적 알람에 대해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의 결심을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였다. 이어 나오게 되는 산발적인 알람소리가 개인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고, 자유롭게 풀어 헤친 셔츠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알람소리에 의해 사람은 다시 위축되고 망설이고 타인을 의식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흔들리다 결국 지치고, 처음 시작했던 멜로디의 작은별 변주곡도 느리게 베리에이션 되어 나온다. 작은별 변주곡 저변에 깔려있는 시계 초침소리가 한 개인의 낙오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로 흐른다. 이어 음악이 그치고, 무음의 공간 속에 개인의 선택(시계로부터 일어나고 시계를 덮어놓는 행위)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작품이 마무리 된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60〉 3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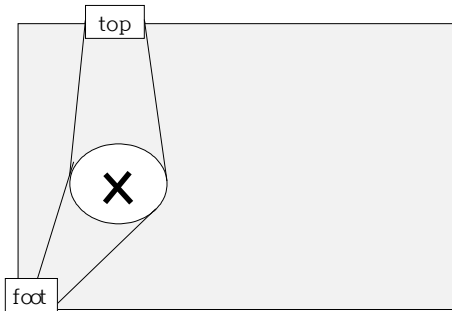


〈그림 4-61〉 3장. 조명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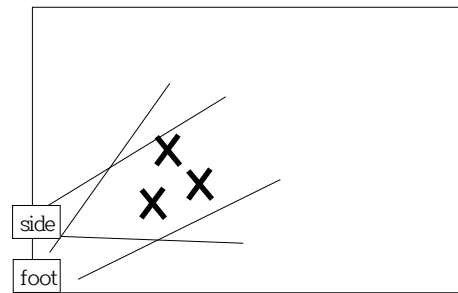


〈그림 4-62〉 3장. 조명 플랜

2장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조명의 색은 푸른색 계열로 사회의 도열에서 이탈 하고자 하는 결심과 망설임이 동시에 뒤섞여있는 혼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푸른 색상이 선택 되었다. 다름에 대해 죄어오는 분위기를 넓은 탑(Top light)에서 좁은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탑으로 점차 서서히 작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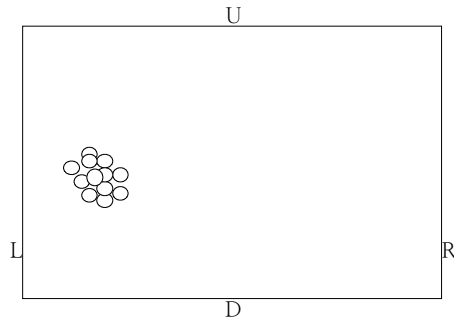
〈그림 4-63〉 3장. 조명 플랜



〈그림 4-64〉 3장. 조명 플랜

개인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며 작품은 막바지에 이르고 하수에 있는 빛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사회적 알람을 쫓다 자신의 이상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습은 하수의 전면 측광(front-side light)을 사용함으로써 세 명의 무용수를 오롯이 비춘다. 한 개인이 사회적 알람에 지쳐 시간에 눌리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도 이전에 말하였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탑 조명으로 표현되고, 사회적 알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표현하면서 다시 전면 측광이 비추고 나면 페이드아웃으로 무대의 마지막 구성이 완료 된다.



〈그림 4-65〉「COUNT」 소품 구도

열 두개의 크고 작은 시계들은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큰 원을 만들었다가 이내 한 사람의 위로 덮여진다. 이는 사회적 알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무거운 선택이었음을 표현 하고자 함이었으며, 이후 시계터미 속에서 일어남으로서 흐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면이다.

V. 결 론

누구나 자신이 품은 이상 하나쯤은 가져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해당 논문 [COUNT] 를 통해 연구자는 현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삶의 과다가 커진다고 생각 하였다. 연구자 본인도 살아오며 느낀바 자신의 의도대로만 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자신의 선택을 흔들리게 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은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방법들로 장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주한 삶에 다그치고 채근하여 살아가는 데 속력을 더해주는 채찍과도 같은 작용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알람이란 현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 조망된 사회적 알람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비춤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여 내고자 하였다. 삶의 여러 가지 통제에 꺾이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현재의 개인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제재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작품 [COUNT] 는 연구자 본인에게도 작품을 연구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재정비하고 돌아본 삶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는 부모의 사회적 알람이, 부모의 품을 떠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사회적 알람과 스스로가 정해놓은 알람으로 인해 괴로웠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무조건적 부정보다는 개인의 삶을 한걸음 뒤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모와 타인이 본인에게 주었던 알람의 의도가 부정적인 작용만이 아님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정리되지 않은, 조금은 어리고 서투른 자신의 방향성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타인에 의해 미래를 인도받는 그들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많은 것들이 양날의 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알람도 그러하다. 그것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받아들이기를 기다려주는 사람과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기다려주지 않고 무조건적 답이라 생각하여 주입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영향의 방향성이 다르다.

사회적 알람은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알람일 뿐 사람들마다 올리는 타이밍은 다르다. 개인의 알람은 타인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누군가가 대신 올려줄 수는 없다. 스스로의 타이밍을 찾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안내하며 준비할 때 올리는 그 때가 바로 답이다. 다름을 존중하고 삶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 시간은 각자의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미경. (2014). 『살아있는 뜨거움』. 경기: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 김희진. (2008).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역기능 가정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배. (2005). 『색채의 이해와 활용』. 서울: 안그라픽스.
- 선헌연. (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경기: 한국학술정보.
- 이지수. (2016).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규칙과 유아의 규칙순응성 및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11).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훈 외. (2004). 『색채의 원리와 활용』. 서울: 미진사.

<인터넷 자료>

- 2030세대 취업은 필수...“결혼·출산은 글썄?”, 뉴스프리존, 2019년 6월 1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22>
- 장래희망 지형 바뀌었다...1위 운동선수·5위 유튜버, 동아닷컴, 2019년 6월 1일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81213/93273803/1>
- 국민 5명중 1명 ‘행복 취약층’ ...OECD 행복순위, 중앙일보, 2019년 6월 1일
<http://news.joins.com/article/23347979>
- 경보/알람의 사전적 의미, 네이버, 2019년 5월 31일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2%BD%EB%B3%B4&range=all>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 안정적인 노후희망, 코그뉴스, 2019년 5월 31일
<http://www.kognews.net/news/view.html?section=photo&category=563&order=all&no=16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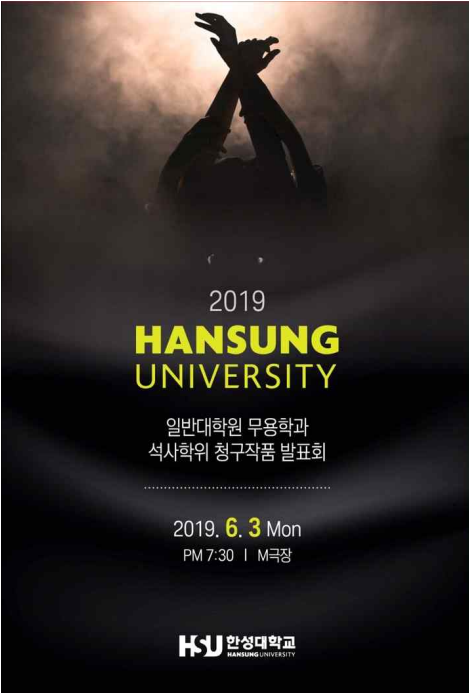
국가 통계 포털, 직업선택 기준, KOSIS, 2019년 5월 30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0300619&conn_path=I3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COUNT
일 시	2019. 06. 03 금요일 19시 30분
장 소	M극장
안무자	이아름
출연진	김봄, 박은소, 이아름
의상 디자인	이아름
무대감독	박철수
조명감독	김병구
영상감독	리인규
사진작가	이준희

〈팜플릿〉



2019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19. 6. 3 Mon
PM 7:30 | M극장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무용학과 지도교수 | Dance Department Professors

박영애 교수 (무용이론)
박재홍 교수 (발레)
김남용 교수 (한국무용/현대무)
정석순 교수 (현대무용)

주최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HSU 한성대학교
서울특별시 상봉구 상선로 16길 116(상선동2가) 한성대학교
Tel : 02-760-4107 | <http://www.hansung.ac.kr>

작품 제목 | Name of the product

COUNT

작품 내용 | Work comments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각각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는 행위들을 의무로 규정짓고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재근거하는 현상을 사회적 알람이라고 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 생명은 그들의 직/간접적인 기대와 요구로 만들어진 사회적 알람에 맞춰 성장한다. 삶의 곳곳에서 인간 존재로 요구되었던 사회적 알람들은 시간이 흐름수록, 삶이 돌아갈수록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알람을 통해 자라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다 생각하는 것을 그것에 마치 정당화당 제시한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간섭일까, 아니면 타인을 향한 애정일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알람은 장단이 될 수 없다.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지.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길 36 | Tel. 02-578-6812 | ent116@hanmail.net



안무자 : 이아름
출연자 : 이아름, 김보, 박은소
지도교수 : 정석순



ABSTRACT

Analysis on Dance Creation [COUNT]

Lee, Ah-Reum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Prompted by the theme of social alarm, a lecture by Migyeong Kim, through a form of a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express the widespread social phenomenon of being forced to pursue a certain goal in life and to provoke questions to audiences. Young people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live their lives as if they are pursuing a generalized life path and therefore cannot determine their own way of living due to social alarms. If one misses a certain period of the generalized path, s/he is considered to be lagging behind other people. Even if they ar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they often confine themselves to the perpetual gaze of others, and sometimes even themselves in social alarms. Modern people who are busy going forward only, at times, need to pause to reflect their lives and ask if they are living their lives on my own terms?

The lecture on social alarms in a way is a response to the social transition from a uniformed way of living to unique ways of living on their own terms whose trend is on the rise. "COUNT" attempts to raise questions to those who have the social alarm as the motive but are not sure whether

to boldly turn off the alarm or live a life that conforms to the flow.

In order to define the social alarm, the performance was composed of three concep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arm and the reaction to it, emotions and interactions arising from living as a social being, and compliance and refusal to flow. This performance, which consists of three major chapters, is composed of alarm clocks and choreographs that show the flow of individuals and society. A button-filled shirt worn by a child symbolically represents the overall ambiance of the performance. So as to deliver the intention of the performance more clearly, we analyzed the performance in separate subjects, such as dancers' roles divided by ideal and reality, the stage space composition, lighting, props, music and images.

From this study, we suggest that we can choose to have the courage to pause and the wisdom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flow on our own terms, without being swayed by the big wave of the social alarm. The act of reflecting the direction of one's own life *per se* is tantamount to taking a fresh new breath of one's own life. And that is not a bad thing at all. It is entirely up to the audience how to interpret this phenomenon, because we all are on a different stage of our own life journey.

【Keywords】 Social alert, Social phenomenon, Intergenerational Conflicts, Subjective life, Flow